

아침 햇살

2018 FALL

	한미특수교육센터 소식	p. 02
	로사 장 칼럼 영어어가는 열매	p. 03
Parenting 정보	아이의 건강한 사회정서발달, 이렇게 도와주세요 (1)	p. 04
	전문가 칼럼 치료와 수용의 사이에서 균형잡기	p. 06
교육정보	온 가족이 즐겨요! 스포츠 스택킹 (Sports Stacking)	p. 08
행사 결과 보고	행복했던 2박 3일 샌프란시스코 가족 여행기	p. 10
	한미특수교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p. 12
	후원해 주신 분들과 단체	p. 13

1 7월 10일 화요일.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음악 놀이 프로그램 “Music Circle-I’m growing”이 LA 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 2~3세의 유아와 엄마(아빠)가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즐거운 음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7월 19일~21일. 발달장애인 가정들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 “I’m Here Project”를 잘 마쳤습니다. 2박 3일간 19명의 장애자녀를 포함한 총 51명의 가족들이 센터 스태프 및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관련기사 Page10-11).

3 7월 27일 금요일. 센터의 스태프들과 선생님들이 인근 공원에서 “망중한” 피크닉을 가졌습니다. 바쁜 중에 시간을 쪼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게임도 하며,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새로 시작되는 가을학기를 함께 준비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4 8월부터 센터의 가을학기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플러튼과 얼바인에서 각각 스페셜스 포츠 프로그램(15주간)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학기까지 플러튼과 얼바인 지역에서 각기 모이던 하모니아 오케스트라(15주간)는 이번 학기부터 통합하여 애너하임 지역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댄스 프로그램은 전문 댄스 스튜디오인 SOW Studio로 장소를 옮겨서 더 많은 학생과 봉사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들을 위해 8월 10일 애너하임에 위치한 성토마스한인천주교회에서 모든 봉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봉사자 교육(Volunteer Training)이 있었습니다. 봉사자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발달장애에 대한 기본 강의를 듣고 각 프로그램 내에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이었습니다.

5 9월 한달간 매주 토요일에 “발달장애 ABC”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발달장애국(DDS)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최근에 자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자녀의 부모님들, 아이의 발달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들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LA, Rowland Heights, Anaheim, East LA 등 네 지역에서 각 Regional Center와 협조하여 진행되었으며, 총 6가지 분야의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6 KASEC 엘에이 사무실에 권정아 선생님(특수교사)께서 매주 화요일 오셔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7 “발달장애인 그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미술에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더욱 지원하기 위해서 그림 작품을 공모합니다. 마감은 10월 5일까지이며 2019년 한미특수교육센터의 달력에 당선작품을 실을 예정입니다. 이번 미술 공모는 한인 뿐 아니라 타인종에게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Kang Dream Foundation에 감사드리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남가주한인미술가 협회에서 수고해주시기로 해주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아티스트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8 ‘영유아 무료 발달선별검사’가 시라기쿠 파운데이션(Shirakiku Foundation)의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이번에는 가디나 지역에서 열립니다. (시간-10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장소- 대흥장로교회) 언어발달, 정서 사회발달, 시각, 청각, 치아, 대근육, 소근육 발달 등 총 7가지 영역에 대한 선별검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참석을 위해서는 꼭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 12월 10일 월요일. KASEC 연말파티가 있습니다. 이 날은 일 년 동안 수고한 학생과 봉사자를 시상하는 시간과 함께 그간 배우고 노력했던 실력을 뽐내는 시간도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로사 장 칼럼



영끌어가는 열매

Rosa Chang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한 바람이 부는걸 보니, 늘 여름만 있을 것 같은 이곳에도 가을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2015년 소장이 되면서 선물로 받아 사무실 탁자 위를 지키던 산세베리아가, 올 해 들어 더 바빠진 주인이 제대로 못 돌본 탓인지, 사과랏고 튼튼하던 잎들이 시들시들해지더니 급기야는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라 화분을 안고 화원에 달려가니 화원 주인은 냉정하게 “가망없어요!” 라고 사망선고를 내립니다. 그 동안 거름을 한번도 안준 탓이라고요.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물과 공기와 햇볕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름 없이는 이렇게 허망하게 스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명을 다한 산세베리아를 쓰다듬다가, 문득 우리가 뿌린 씨앗은 어떤 날씨를 버티며 자라서 이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를 처음 시작했던 2000년. 장애에 대해 한국어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던 그 시

절, 황무지 같았던 이곳에 우리가 뿌렸던 씨앗은 18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싹을 틔우고 한 해 한 해 비바람도 맞고 폭염도 이기며 자라났습니다. 나이테가 한줄 한줄 늘어나 이제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나무가 되어 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18년동안 렌트비 내기도 어려웠던 날들이 많이 있었고, 급기야 센터 문을 닫아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마다 도움의 손길이 기적처럼 어디선가 나타났고,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희망을 품으며 한 해 한 해 나아갔었고 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온 덕에, 올 해 초 그동안 꿈만 꾸어왔던 주정부 그랜트를 받아 자폐증의 조기 발견을 돕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센터의 부족한 인력과 규모때문에 Private Foundation이나 정부 그랜트를 신청할 자격조차 없던 시절,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과 재외동포재단이 그랜트를 신청할 기회를 주었고, 이를 통해 조금씩이나마 계속해서 한인 커뮤니티의 장애 가정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과 경력이 쌓여 드디어 주 정부 그랜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주는 공기와 햇살이 있었고 거기에 누군가는 물을 주었고 누군가는 이렇게 밑거름이 되어 주었기에, 우리 센터라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자랄 수 있었고, 그 나무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영끌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조그만 열매를 막 맺기 시작한 작은 나무이지만,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가족을 지원하는 일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후원자들과 한인 커뮤니티의 단체들이 해마다 조금씩 더 늘어 밑거름이 되어 준다면, 어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는 튼튼한 나무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장애 친구들과 어울려 농구도 하고 춤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며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면, 풍작을 기대하며 추수를 앞둔 농부의 마음처럼 설레고 행복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이 열매를 키워주신 여러분들께도 이 기쁨과 행복이 전해지길 바라며 가을 바람에 소식을 실어 보냅니다.

아이의 건강한 사회정서 발달, 이렇게 도와주세요 ①

이 글은 NAEY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에 실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주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사회정서 발달을 어떻게 촉진하고 도와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회정서 영역의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도 좋은 팁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2회에 걸쳐 아침햇살 지면에서 나눕니다.

<글쓴이 소개>

1. 신뢰관계 형성하기 : 아침햇살 2018 가을호

2. 사회정서적인 기술 가르치기 : 아침햇살 2018 겨울호

유치원에 다니는 3-4세 아이들은 함께 놀이를 하면서 웃고 떠든다. 이야기 시간에 집중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고, “뭐가요?”, “왜요?”라고 계속 질문도 한다. “네가 나쁜 말을 할 때 내가 참 슬퍼!” 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친구에게 “괜찮니? 곰인형 안고 있을래?” 라며 공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파란 자동차에 툄다 관심이 생긴 영은이와 민석이가. 이때 민석이가 “내가 먼저 놀고 그 다음에 네가 놀래?” 라고 말하자 영은이는 “그럼 네가 5분 놀고, 내가 5분 놀자.” 라고 대답한다. 이를 본 선생님은 “영은이와 민석이가 장난감을 교대로 갖고 놀기로 했구나. 참 잘했네!”라고 이야기 해준다. 유치원 교실에서 볼 수 있는 건강한 사회 정서 발달의 모습이다.

사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의 일반적 특징:

- 평소기분이 좋다
- 지시사항을 잘 따른다
- 부모나 보호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감정 변화를 이해하고 공감한다
- 자신이 원하는 것과 선호하는 것을 확실히 표현한다
- 그룹활동과 놀이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 친구들과 같이 놀고 양보하고 협조할 줄 안다

사회정서적 건강은 아이들의 전반적인 성장과 학습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 연구에 의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은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며, 학습태도 또한 적극적이고, 수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학습성과 또한 더 높게 나온다고 한다.

유치원 교실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 1. 신뢰관계 형성하기 (Establishing trusting relationship)와 2. 사회정서적인 기술 가르치기 (Teach social and emotional skills intentionally)이다.

1. 신뢰관계 형성하기

선생님과 아동의 신뢰관계는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선생님과 좋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긍정적인 사회정서 발달을 보인다.

1)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선생님의 기분이 안 좋은 날이나 아이들의 태도가 안 좋은 날에도 선생님의 변함 없는 사랑과 애정은 아이들의 초기 교육환경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선생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은 아이들과 어른들의 안전한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한 또래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 아침에 아이들을 맞이할 때 부터 오후 수업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이 잘했을 때 칭찬을 잊지 않는다.

- 항상 적절한 목소리를 유지하여 너무 높거나 크지 않고 항상 부드럽고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나아가 아이의 행동을 교정할 때에도 아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고 아이의 행동에 잘못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변함없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 필요에 따라 가볍게 등을 다독여 주거나, 악수, 안아주기, 살짝 간지럽히기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아이들과 대화하기 위해 좀 더 가깝게 다가가거나 아래로 숙이거나 구부려서 아이들과 같은 눈 높에서 대화하려고 한다.

- 자신이 아이들에게 관심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애정어린 말로 다음과 같이 자주 표현한다: "오늘 아침에 너를 만나니 정말 행복한걸!" 또는 "네 미소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2) 존중과 배려

아이들에게 존중을 표해주는 것은 긍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아이들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데 도움을 준다.

● 아이의 의견을 집중해서 듣고 아이의 의견을 선생님의 언어로 다시 반복한다. (이때 아이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기회가 된다.)

■ Jason : "선생님 제가 레고를 많이 사용해서 트럭을 만들었어요"

■ 선생님 : "어머, Jason, 정말 많은 갯수의 레고를 사용해서 만들었구나!"

■ Jason : "저는 이 트럭으로 상점에 사과와 바나나를 배달해요"

■ 선생님 : "트럭을 사용해서 영양가 많은 과일을 상점에 배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영하여 대화한다.

■ Jasper : (짜그리면서) "Michael이 내 큰 블럭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 선생님 : "Jasper, 지금 큰 블럭들이 없어서 기분이 나쁘구나. 기다리는게 힘들지!"

■ Amy : (기분 좋게) "이제 곧 밖으로 나갈 시간이예요!"

■ 선생님 : "네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 정말 밖에 나가보고 싶구나. 진짜 신나겠네."

이처럼 선생님이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영해 줄 때 아이들은 선생님이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선생님의 인정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었음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된다는 안정감을 얻는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언어화하며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 일대일로 시간을 보낸다 - 동화읽기, 놀이하기 등

Emily는 엄마와 헤어질 때가 너무 슬프다. 선생님은 Emily를 데리고 부드러운 베개와 인형이 있는 교실의 조용한 구석에서 책을 읽어준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Emily는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다. Judy는 아무도 자기와 함께 놀아줄 친구가 없다고 불평한다. 선생님은 다른 친구가 Judy와 함께 놀아줄 친구가 될 때까지 같이 놀아준다. 그뿐 아니라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뒤로 미루고 아이의 눈 높이에 맞춰 좋은 대화를 나누며 아이와의 관계를 향상함으로써 아이에게 신뢰를 준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치료와 수용의 사이에서 균형잡기

「부모와 다른 아이들(원제: Far from the tree)」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앤드류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썼다.

“동일한 일단의 문제를 둘러싸고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허구가 존재 한다. 첫 번째 허구는 자폐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에서는, 마치 부모의 과감한 용단 덕분에 끔찍한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제비꽃이 만발한 봄 들녘에서 춤을 추듯이, 고통에서 탈출하여 완전히 말을 할 줄 알게 되고,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신선하고 황홀한 매력을 발산하는 아름다운 소년 소녀들이 묘사된다. 헛된 희망을 주는 이런 이야기에는 자폐증과 싸우고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는 정작 쏙 빠져있다.

두 번째 허구의 줄거리는 자폐 아동이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없음에도 그 부모가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기보다 축복해 주고 주어진 상황에 전적으로 만족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은 가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호도하고, 자폐증의 근본적인 문제를 애매하게 만들 수 있다. 요컨대 대다수 자폐인들의 삶에 불가사의한 측면들이 존재한다면, 자폐증 자녀를 둔 대다수 부모들의 삶은 명백히 힘든 삶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전적으로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애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지 않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든다. 밤새도록 깨어 있어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고, 괴성을 지르고 짜증을 부리지만 이유를 알아내려 해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또는 선천적으로 화가 많은 아이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혼란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진이 빠지고, 보람이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치료와 수용을 병행함으로써 이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다. 치료하고자 하는 충동에만 이끌리거나 수용하고자 하는 충동에만 이끌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와 다른 아이들 1권, p.518-519)

이 글은, 흔히 장애를 또 다른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쉽게 표현하는 ‘다름’과 ‘문제행동 교정’이나 ‘언어치료’라는 말처럼 교정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영역에 대해 표현 가능한 ‘틀림’의 사이에서 항상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딜레마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자폐성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장애를 진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영유아들과 그들의 젊은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니다. 언제든 다양한 일상적 상황에서 장애로 인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부모들은 이 ‘치료나 교정’과 ‘장애의 수용’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때로는 자신이 나름대로 찾은 그 균형점을 자녀와 만나거나 부딪히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에 진을 빼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렇다면 이 치료와 수용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 나 또한 정답

을 내놓을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과 타인의 차이에 대응하는 방식에 관한 것인 동시에,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부적절한가를 판단하는 규범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코 획일화된 정답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부모인지, 교사인지, 전문가인지에 따라라도 당연히 그 기준선은 달라지고, 같은 부모라도 아이의 장애가 가벼운 정도인 부모와 장애가 더 심한 경우에 있는 부모들도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어디까지를 개선하고 어디까지를 있는 그대로 둘 것인가를 판단할 때 항상 생각해보아야 하는 중요한 준거는 있을 수 있다.

● **첫째, 장애가 있는 당사자인 아이의 입장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은 고통을 당하거나 부당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이 최소한의 인권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비록 부모라 하더라도 장애로 인해 필요한 치료나 중재를 이유로 아이에게 부당한 스트레스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 스트레스를 전혀 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당한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가르치는 것이 무발화이거나 거의 발화로 대화하기 어려운 상태의 아이에게는 부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자기자극을 통한 안정감을 얻기 위한 상동행동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단지 장애가 없는 아이들은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이라는 이유로 그 행동을 없애기 위해 아이를 강제로 억압하는 것도 부당한 스트레스나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어른들이나 비장애인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언어와 어떤 행동들을 가로막거나 억압하는 일은 사실 부모와 교사들 모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다. 이것은 치료되어야 할 것과 그냥 수용해야 하는 것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둘째, '더 나은 기능' 또는 '더 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야 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와,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간의 의사소통 기능의 차이 중 어느 것이 더 큰 차이일까? 그리고 전자는 심각한 문제이거나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후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중학생이 교복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은 채,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에 선글라스를 끼고 껌을 씹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런 행동은 대개의 우리나라의 교실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규정되고 교사로부터 지적을 당하거나 제지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미국의 중학교에서는 같은 행동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그 학생이 감각처리장애가 있거나 감각의 과민성으로 인해 선글라스를 끼면 좀더 편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고, 구강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껌을 씹는 동안 집중력이 좋아지거나 신경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는 발달장애 학생이라면 그 행동은 일종의 '장애인 편의제공'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부적절해 보이는 행동이 필요한 편의제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거의 대부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 개방적이고 더 폭넓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적 판단 기준을 가진 사회일 수록 당연히 이러한 행동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또한 더욱 유연한 것이다.

'다름'과 '틀림'은 항상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시간과 장소와 대상에 무관하게 절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판단이나 당위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물론, 나는 그 기준이 더 개방적이고 더 많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더 많은 약자들이 정상화의 원칙에 따라 일상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하기를 바란다.

- 김성남 (나사렛대학교 재활자립학과 겸임교수 / 소통과 지원 연구소 대표)



교육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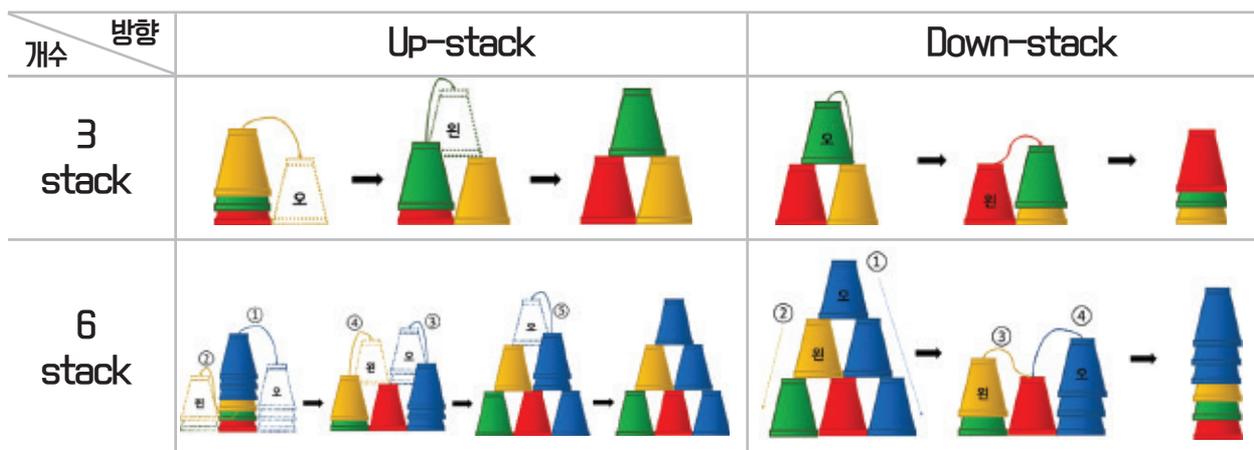
“온 가족이 즐겨요! 스포츠 스택킹 Sports Stacking”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메이저 스포츠를 쉽고 안전하게 변형·결합하거나 전통놀이를 현대에 맞게 변형하여 만든 스포츠를 뉴스포츠라고 합니다. 남녀노소·장애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어, 상당히 다양한 종목의 뉴스포츠가 보급되어 있는데, 장애학생들의 치료 교육은 물론 레크리에이션의 목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정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스택킹(Sports stacking)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포츠 스택킹(Sports stacking)은 12개(혹은 9개)의 컵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얼마나 빨리 쌓고(up-stack) 내리는가(down-stack)를 측정하는 기록 스포츠로, 1980년대 초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어린이들이 종이컵으로 놀이를 하던 것에서 유래되어 1990년대 중반에 스포츠로서의 체계가 구축되면서 교육현장에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는 컵 12개, 스택킹의 원활한 동작을 돕는 스택킹 매트, 기록을 측정하기 위한 타이머가 필요합니다. 선수가 직접 타이머의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경기규칙에 따른 동작들을 수행한 뒤 타이머의 정지버튼을 누름으로써 기록을 측정합니다. 스포츠 스택킹은 경기장비와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소근육과 집중력 및 순발력을 키우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스택킹의 기본 기술인 3 stack의 up-stack과 down-stack, 6 stack의 up-stack과 down-stack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 : 오른손 / 왼 : 왼손)

스포츠 스택킹은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으로 나뉘는데, 개인종목 중 '3-3-3 stack'과 '3-6-3 stack', 단체종목 중 '더블 3-6-3 stack' 등은 장애학생들도 비교적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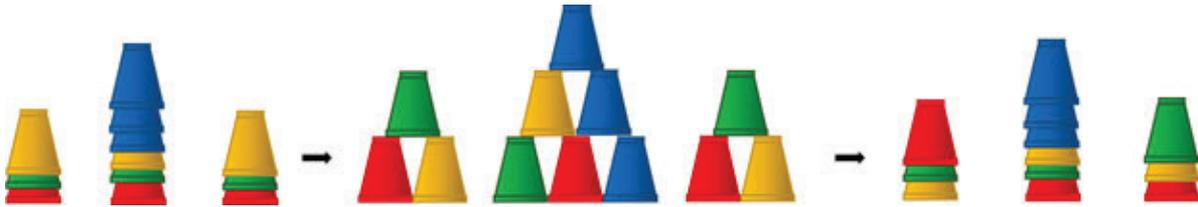
1) 3-3-3 Stack :

3개씩 포개져 놓여 있는 컵을 양손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주 사용 손의 대각선에 놓인 컵부터 쌓고 내림) 쌓은 후 다시 처음 쌓았던 순서대로 내리는 경기. Down-stack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른손만 사용.



2) 3-6-3 Stack :

3개, 6개, 3개로 포개져 놓여 있는 컵을 양손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주 사용 손의 대각선에 놓인 컵부터 쌓고 내림) 쌓은 후 다시 처음 쌓았던 순서대로 내리는 경기. Down-stack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른손만 사용.



3) 더블 3-6-3 Stack:

두 사람이 각각 오른손과 왼손만을 사용하여 마치 한 사람이 경기하듯 3-6-3 Stack을 하는 경기.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결과, 처음에는 컵을 잡는 것조차 관심이 없었고, 컵을 잡더라도 컵을 들고 마시는 흥내를 내거나 던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의 참여를 통해 주위의 환경이 조성되고, 또래의 활동영상을 보며 조금씩 컵을 쌓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고, 경기기록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점차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 지속시간도 증가되고, 기록도 단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을 측정하면서 시간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생기기도 하였고, 다른 친구들의 기록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가정에서는 꼭 장비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종이컵과 휴대폰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여 자녀와 함께 스포츠

스택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단체종목을 활용하여 부모님이나 형제들과 함께 경기를 즐긴다면 협동심과 유대감이 형성됨을 통해 사회성 증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컵을 쌓는 순간에 맞춰 자녀가 좋아하는 동물이나 물건 등의 이름을 말하며 리듬을 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다양한 활동영상이나 친한 친구 혹은 형제의 활동영상을 보여주고, 가족들이 흥미롭게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느새 컵을 들고 서있는 자녀를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글 : 권정아 (특수교사)

- 참고문헌 : 시사상식사전

행사 보고



행복했던 2박 3일 샌프란시스코 가족 여행기

**"아이와 비행기 타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남들에게 평범한 여행이 우리 가족에겐 꼭
기적같아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내가 더 동생을 잘 챙겨
주어야 돼요."
"아이들과 이렇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
을 보낸 적이 또 있었을까 싶네요."**

7월 19일부터 2박3일간 장애자녀 19명과 그 가족들을 포함, 총 51명이 한 대의 버스에 몸을 실고 부푼 마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인 KASEC 가족여행은 장애자녀로 인해 여행의 기쁨과 여유를 포기해야만 했던 가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이 분들에게도 여행의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첫째날 자폐증세를 가진 직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구글 본사를 둘러보고, 장애인들을 위해 구글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설명도 듣고 본사를 둘러보았습니다. 둘째날에는 샌프란시스코 시내관광은 물론 금문교까지 크루즈를 타고 다녀왔고, 셋째날에는 페블비치와 솔뱅까지 관광을 하였습니다.

이번 여행 기간에는 특별히 북가주에 계신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님들도 저녁시간 부모님 미팅에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가신 박현선 박사님과 대화시간도 갖고, 남가주에서 올라가신 여행팀 부모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교육 등 좀 더 실질적인 주제들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박 3일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아름의 추억을 안고 2019년 가족여행을 또 기대해봅니다. 이번 여행이 가능하도록 후원해주신 오픈뱅크(행장:민 김)와 그 외 도와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모님 여행 후기

저는 이번 여행에 함께한 엘에이 팀 중 Sean Kim 엄마입니다.

이번 여행의 즐거움과 행복함은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단어를 총동원 시켜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함께 했던 모든 가족의 마음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아들 Sean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단체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줄서기, 기다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띄게 좋아진 점입니다. Sean은 줄서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많은 가족이 함께 하다보니 항상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서도 아무 탈없이 잘 지냈습니다. 두 번째로 Sean은 한 공간에서 다른 가족과 잠을 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부러 다른 가족과 한 방을 쓰기로 하고 걱정반 기대반으로 여행을 했는데, 결과는 그야말로 환타스틱이었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씻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에서 혼자 눈물이 절끔 난 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장 걱정했던 Sean의 편식 습관이었는데, 자신이 안먹는 음식이 나오면,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골라 불평 없이 먹는 모습에 감동해서 또 눈물이 절끔, 마지막으로 여행이 끝나고 헤어질 때, 스스로 팀장님한테 가서 내년 여행에 또 가고 싶다고 당당히 말하고 온 것입니다. 항

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팀장님한테 그 말을 하러 가기까지 속으로 얼마나 망설이고 다짐을 하고 때를 기다렸을까.. 엄마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이번엔 정말 속으로 눈물 한 바가지는 흘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이 Sean에게 현장실습 소셜테라피(Social Therapy)였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적, 외적으로 참 많이 성장했구나 감사감사 또 감사했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그 성장 속도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에서의 거북이 처럼 한걸음 한걸음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Sean의 장점을 살려 나간다면, 반드시 finish line에 도착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최종의 목표인 INDEPENDENT LIVING을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의 아름다우신 소장님, 카리스마아재 개그가 특기인 팀장님, 너무 사랑스러우신 박현선 박사님, 그냥 킹왕짱이신 케빈 선생님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가족 분들 모두모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김영임
(Sean Kim 어머니)



한미특수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2000년 특수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개인과 개인 사업자, 기업 및 자선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인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 유치원이나 교회, 한글학교 등의 선생님을 위한 최신 특수교육 및 치료정보 워크숍과 심포지움 주최
- 특수학교와 장애 관련 프로그램 정보 및 자료 제공
- 특수교육 관련 법률 의료 서비스 및 사회복지 정보 안내
- 마스크를 통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행사 주최
- 장애 및 치료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무료 계간지 "아침햇살" 발간 등

※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특수교육 서비스에 관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2018년 6월 28일 - 9월 26일까지

개인

Choi Family, Jennifer Kim, Jill Jooyun Ko, Lisa Yi, Sang H. Park, Sara Woo, Stella Gee, Sung H. Kim, Susie Yun, Teresa Cho, Virginia Moon, 김명신, 김소영, 김신규, 김은주, 김효정, 나성애, 박명숙, 박수정, 박지경, 박현선, 박혜연, 방하섭, 배도숙, 백진숙, 신재주, 양선주, 육재민, 윤완영, 윤현숙, 이은영, 장인숙, 정옥점, 한지영, 현경섭

단체

Asian Pacific Community Fund of SC, Cal Mental Health Authority, Dough City Corporation, Wayne and Esther Kim Charitable, New York Life, 미주서부교회, 하심교회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후원안내

01

온라인을 통한 후원

www.kasecca.org
에 가셔서
원하시는 금액을
Credit Card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Paypal 계정을 통해
안전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

우편을 통한 후원

아래의 센터 주소로
Check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Payable to KASEC

센터 주소

13353 Alondra Blvd.
Suite 110,
Santa Fe Springs,
CA 90670

03

Amazon 쇼핑을 통한 후원

Amazon으로
쇼핑하실때
Smile.amazon.com
을 통해 들어가셔서
'pick your own charitable
organization'에서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를 선택하시면
총 구매금액의
일부가 우리 센터로
기부가 됩니다.

04

은행을 통한 후원

후원자님의 은행에
저희 센터의
은행 인포메이션을
주시면 됩니다.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Bank Name :
Open Bank
ABA Number :
122043958
Account Number :
04200218

※ 저희 센터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AX ID 20-1635852)

Since 1992

STEVEN C. KIM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STEVEN C. KIM

ATTORNEY AT LAW

The Wilshire Colonnade

3701 Wilshire Blvd., Suite 1040
Los Angeles, CA 90010

(213) 365-7007

Fax (213) 365-7001
stevenkim@sbcglobal.net

Solution for Tomorrow



CEO **David Chul S. Yang**

대표 **양철승**

david@laservisionworld.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 323.730.5050 F 323.731.1313 C 323.383.3723



Kyu Bum Han

Lic. # 0B55520

GLOPAX FINANCIAL & INSURANCE SERVICES

Insurance & Financial Planning

7740 Painter Ave., Suite 206 Whittier, CA 90602
Phone : **(562) 945-2670** Fax : (562) 945-2680
info@iglopax.com



*Cerritos
Branch*

17416 Carmenita Rd.
Cerritos, CA 90703
Tel. 562.404.0440

Christina Kwon

REALTOR®



BEST REALTY

413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Each Office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Direct: (714) 504-6767

Office: (714) 451-1700

Fax: (714) 451-1720

RealtorKwon@gmail.com

www.Christinakwon.com



DRE Lic.#01822938



진료 과목

- 일반내과(고혈압, 당뇨병)
- 소아과(예방주사, 신체검사)
- 부인과(PAP Smear, 유방암 검사)
- 외과, 피부 비뇨기과
- 종합 건강 진단과 진찰(Physicals)
- 직장사고, 교통사고
- 응급치료(Urgent Care)
- 알러지 검사 및 치료
- 각종 피검사
- X-Ray 검사, 초음파, 심전도
- 위, 장 내시경 및 조직검사
- 레이저 치료
- 골다공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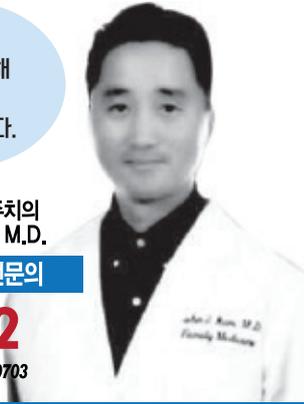
각종보험 / 메디케어

진료 시간
월-금: 8:30AM~6PM
토: 8:30AM~1:00PM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김신근 가정 주치의
John S. Kim, M.D.

미국 보드 전문의



562.402.7622

11911 Artesia Blvd. Suite #101 Cerritos, CA 90703



TranStar Transportation, INC.
Jay Shin, President

Truck Load, Less Than Truck Load and Transportation Service

- Truck Load to Northern California, UT, CO, AZ, NV, TX, etc
- LTL (Less Truck Load) Service in California
- 53ft Trailer & 26ft Bobtail Trucks available

Tel : (310) 534-0113

Mobile : (310) 800-8510

Fax : (310) 534-0116

Email : TranStar.inc@gmail.com

24328 S.Vermont Ave. suite #355, Harbor City, CA90710

LAW OFFICE OF JENNIFER S. CHANG

JENNIFER S. CHANG, ESQ

5900 WILSHIRE BOULEVAR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36

JENNIFER@JENCHANGLAW.COM
TEL (323)931-5270
FAX (213) 896-7050

“ 제니퍼 장 변호사는 따돌림, 정학, 퇴학같은 학교 생활 문제부터 특수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사안까지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교육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



WWW.EDUCATIONRIGHTSATTORNEY.COM
WWW.JENCHANGLAW.COM

The Original Korea Brand **Taste of Korea**



wang GLOBALNET

<http://www.wangfood.com>



한미특수교육센터 운영진 및 Staff 소개

Board Members

이사장 : 양한나

실행이사 : 한규삼 (서울 충현교회 담임목사), John Kim (세리토스 메디컬 센터 병원장)

조제원 (가톨릭대학교 의생명 융합 연구원 부원장), Christina Kwon (Realtor, Coldwell Banker)

강승헌 (Wang Globalnet 대표), Roy Cho (Angeles Contractor, Inc. 마케팅대표)

Karen Moon (Independent HR Consultant), Jennifer Chang (특수교육법 변호사)

Advisory Board Members

이시연 박사 (Cal State LA 사회복지학과 교수)

Susan Chung 박사 (Kaiser 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승혜경 박사 (Cal State Fullerton, 의사소통장애학과 교수)

정우식 박사 (Cal State Fullerton, 특수교육학과 교수)

박랑규 박사 (아이코리아 아동발달교육연구원 원장)

Edward Choi (Financial Advisor, Morgan Stanley)

박유진 (유산상속법 변호사)

Executive Director

Rosa Chang, M. Ed.

Clinical Director

Hyun S. Park, M.D in Developmental Pediatrics

Therapists & Teachers

Speech Therapy

Esther Lee (CCC-SLP, M.A. in Speech-Language Path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Michelle Park (SLP-A, B.A in English Literature, UCSD)

Special Education & ADHD Consultation

Hwa Byuck Lee (M.A. in Special Education, CSUF, 현재 Los Cerritos School RSP Teacher)

Special Music Program/Harmonia Music Program

Heesoon Jeon (M.A. in Music 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pecial Sports program

Kevin Ma (M.A. in Education, CSUDH, APE Credential in CSUN, 현 LAUSD APE Specialist)

Sang Nam (Professional Basketball Coach)

Community Outreach Manager

Sam Yoon

Program Specialist

Nari Kim

Administration Officer

Michelle Cho